

'맛있는 밥상, 외국인 노래경연, 서예 대회...' 지스트, 외국인 구성원과의 문화교류의 자리 마련

- 25일(금) 2022 문화의 밤을 통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교류의 장 펼쳐



▲ 2022 외국인 문화의 밤(2022 GIST Culture Night) 행사 프로그램 참가자와 수상자가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가 건전한 과학문화 확산과 지식 및 배움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자 국내외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1월 25일(금) 지스트 외국인 유학생과 가족이 참가하여 각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는 2022 외국인 문화의 밤(2022 GIST Culture Night)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스트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행사 프로그램으로 ▲GIST 명소를 찾아라(2인 1조로 전통의상: 1인 한복, 1인 출신 국가 전통의상을 입고 캠퍼스에서 사진촬영 및 사전 제출) ▲Show me your K-Graphy(한국 격언 서예 대회: 서예 키트 제공) ▲문화 퍼레이드(각국의 문화 소개) ▲맛있는 밥상(전통음식 요리 튜토리얼 비디오 제작 및 음식 경연대회) ▲GIST Voice(노래경연대회)가 진행됐다.

문화 퍼레이드는 총 3개 팀이 참가해 각국의 문화와 명소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국 문화의 특징을 소개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GIST Voice는 지스트 외국인 유학생들과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팝송, 케이팝, 월드뮤직 장르의 노래 1곡을 선택해 공연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며, 총 8개 팀이 무대에 올라 가창 실력을 뽐냈다.



▲GIST Voice(노래경연대회) 참가자가 노래를 하고 있다.

맛있는 밥상은 총 6개의 팀이 각국의 특색 있는 요리를 준비해 관객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현장에서 시식할 수는 없었으나 관람객들이 포장된 음식을 가져갈 수 있게끔 진행됐다.



▲ 맛있는 밥상에 참가한 '방글라데시' 팀이 음식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 맛있는 밥상 참가팀들은 자국의 전통음식을 만들어 관람객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행사장에 준비해 놓았다.

전창덕 대외협력처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문화의 밤 행사를 통해 다양한 구성원들과 가깝게 소통하며 행사를 즐길 수 있어 기쁘다"며 "이 행사를 통해 지스트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사이의 문화 교류 및 유대 관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